

재난기본소득 조기 집행

익산시, 오늘부터 신청... 10만원씩 정액형 선불카드 지급 지역화폐 '다이로움'페이백까지 1인당 최대 40만원 혜택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전국 최초의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을 13일부터 신청 받아 집행에 나선다.

특히 1인당 10만원씩 정액형 선불카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방문 신청자는 즉시 발급할 예정이어서 지역 내 소비심리 확산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난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부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절차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지급 대상자는 9일 00시 이전부터 수령일 현재까지 계속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다.

온라인 신청은 2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 시민(2001년도 이후 출생)은 개별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미성년 세대원은 법정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방문 신청 절차

를 활용하면 된다.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익산시는 이 기간 동안 접수창구에 신청자가 몰려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 신청 기간인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적 마스크 판매에 도입된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자는 오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부스에서 방문하면 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짝수는 4월 30일, 홀수는 5월 1일 방문하면 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수령자는 5월 2일 17시까지 방문하

면 된다.

카드는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만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익산시로 환수된다. 카드 분실 시 재발행은 불가능하다.

지급된 카드는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하고 지역 소재 사업장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다이로움' 혜택까지 더해진 익산시의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1인 당 최대 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위촉된 지역경제까지 더하면 최대 규모의 혜택이 제공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시민과 소상공인, 영세업체까지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지원 정책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전북 최초 다문화가족 재난기본소득 지원

익산시민과 똑같이 10만원

익산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도 익산시민과 똑같이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각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월 9일 00시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 또는 자녀 양육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약 1,000여

명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전 시민에게 지급하여 주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서 담당직원이 직접 접수를 받으며 기프트 선불카드 형식으로 4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재난은 외국인에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적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결혼이민자도 우리 익산 시민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익산시는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을 위해 익산시민만의 특별한 혜택을 담은 다국어 리플릿을 5개국어로 제작 배부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 또한 친정부모 초청, 국제운송비 지원, 청소년 자녀를 위한 심리정서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조모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의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10일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지고, 지난해 익산시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철저히 점검할 준비를 마쳤다.

이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대표 결산검사위원인 김충영 익산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민간위원으로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방경진 세무사, 이양몽, 송병원 전 시의원, 김이곤 전 공무원 등 총 5명의 위원이 선임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되며,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익산시 재정

전반을 엄격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감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해 오는 5월 예정된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며, 익산시의회는 정례회기간 동안 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결산서를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도 농업기술원(김학주 원장)은 인삼 출현기가 예년에 비하여 7일정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저온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봄철 인삼밭 저온피해 주의해야

전북도 농업기술원(김학주 원장)은 올해 봄철 기온이 평년에 비하여 높아 인삼 출현기가 예년에 비하여 7일정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저온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인삼의 출현기 온도는 10~15°C이며, 인삼의 출현시기에 0.5°C 이하에서는 저온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특히 어린 인삼에서 피해가 심하게 발생한다.

특히 하우스 인삼재배는 일반재배보다 10~15일 정도 일찍 출현이 되기 때문에 갑작스런 온도변화에 저온피해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하우스 측창을 내리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온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인삼은 잎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게 되고 줄기가 신장하지 못하며 증상이 심하면 잎이 괴사하여 바로 말라 고사하거나 죽지 않더라도 피해부위에 줄기 반점병 및 잿빛곰팡이병이 감염되어 2차적으로 피해가 발생된다.

이와 같은 저온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겨울철 폭설 피해를 막기 위해 걸어 올린 해가림 차광막을 인삼이 출현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며, 새로 조성한 인삼포장은 4월 상순까지는 해가림을 반드시 설치해야 저온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경제살리기 유관기관 공조

정현을 익산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돌며 현장행진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10일 코로나19의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관 기관을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를 약속했다. 정 시장은 먼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대를 신장이 급증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익산 센터(센터장 이경성)를 방문해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전했다.

이경성 센터장은 일 평균 상담건수가 40건에 달해 신속한 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임시 근로자 1명 배치를 건의했으며, 익산시장은 이에 단기 근로자 1명을 배치를 즉시 결정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대출 신청시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임시로 설치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익산센터는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용등급 4등급이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대출을 처리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어 (사)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센터장 이효선)에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에 대한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센터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종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등 정부 및 익산시 관련 일자리, 취업관련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는 2016년 취창업 및 일자리 관련 분야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해 현재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9명의 직원이 활동중으로 정부부처와 익산시의 다양한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사업으로 매년 S등급의 최고평가를 받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교통분담회 회외연수비 반납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금년도 회외연수비를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가 반납할 예산은 의원 및 수행직원 국외 연수비 1억 1천만원으로, 이 예산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규대 의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관련 국외연수 예산을 반납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많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 한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출산수범의 자세로 의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 관광포토 투어 사진찍기 좋은 곳 공모

군산시가 2020 군산관광포토 투어 사진찍기 좋은 곳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인당 4점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및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36일간 진행된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작 50만원, 우수작, 입선 등 총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공모전은 군산의 문화유적, 주요관광지, 생태환경 등 군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군산의 아름다운 사계절 속에 숨어 있는 포토존을 발굴하고자 마련돼 사진 촬영의 배경으로서 가치가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좋다.

이번 공모전의 목적은 군산의 숨어 있는 포토존을 찾아내는 것인 만큼, 공모전에서는 초원 사자관과 같이 너무 대중화되어 있는 장소 및 구도의 출품작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